

“한미FTA, 자동차산업 혜택크다?”

해외생산 날개 달려 1%부지만 배불릴뿐

수입 열리고, 수출길 좁아진다

미국산 승용차에 붙는 관세를 절반으로 바로 떨어뜨리고 5년 뒤 모두 없어집니다. 한국 환경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도 4배나 풀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수출길이 확 열린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주력차종에 붙는 관세가 4년간 더 연장됐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복구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 증가를 막기 위한 미국 보호무역장치도 허용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수출길이 좁아진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업계 사용자들 속내는?

한국의 자동차업계 사용자들은 이번 한미FTA 비준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수출길 좁아진 김에 미국 현지생산을 마구 늘려 미국에 팔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FTA를 빌미로 해외생산 비중이 국내생산보다 높아질 것이 뻔해졌습니다. 자동차 완성사와 함께 미국으로 진출한 부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공장 생산량에 맞춰 국내 공장 생산은 널 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생산이 줄면 우리에게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한미FTA, 99%힘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협정문 24조 5항은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 통보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 간 조약이라도 되돌릴 수 없는 조약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 건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한미FTA 파기 입장 가진 이들이 절대다수로 늘 때까지 금속노동자가 앞장서 싸웁시다. 99%에 달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비준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무효 촉구 범국민대회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서울 도심